HOKUGA 北海学園学術情報リポジトリ
学校法人北海学園
北海学園大学
北海商科大学

タイトル	世紀末の日本女流文学 : 美と思想と方法を中心に (<特集>共同研究報告 : 近代日本における文化・文明のイメージ)
著者	千葉, 宣一
引用	北海学園大学人文論集, 10: 123-133
発行日	1998-03-31

Hokkai-Gakuen Organization of Knowledge Ubiquitous through Gaining Archives.

세기말의 일본 여성문학

-美와 思想과 方法을 중심으로

치바 센이찌
千葉 宣一

세기말을 맞이하여 쇼오와(昭和) 문학의 유산목록이 작성되고, 그 문학사적 의의와 가치의 검토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직접적으로 감각을 자극하는 텔레비젼, 영화 등의 다양한 영상언어가 범람하고, 문화공간 속에서 문학이 차지하고 있던 중심적인 위치가 무너져서 사회적인 기능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구조주의, 도시문화론, 신체론(身體論), 수용이론(受容理論), 탈구축론(脫構築論:Deconstruction), 포스트구조주의, 신역사주의, 페미니즘비평, 텍스트생성론 등 소설이론은 여름밤의 불꽃놀이처럼 다채롭습니다. 하지만, 소설생명의 본질을 분석하는 작업과는 거리가 멀고, 동의어반복적(同義語反復的)인 말장난으로 공허한 비평이 많습니다. 「순문학(純文學)」이라든가, 「전위소설(前衛小說)」이라는 이름하에 소설은 독아론적(獨我論的)이 철학과 문명비평, 응용사회학이나 실험심리학의 리포터로 전락하여, 혼(魂)의 굶주림과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상실한 소설은 많은 독자들 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일본 문예잡지 『군상(群像)』, 『신조(新潮)』, 『문학계(文學界)』도 판매부진입니다. 동인잡지의 폐간도 계속되고 있으며, 문학청년이라든가 문학소녀라는 말도 사어(死語)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일본문학사에서 여성문학이 최대로 융성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950년 전인 헤이안(平安) 시대 중기였습니다. 「소설」에서는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 「비평」에서는 세이쇼오나곤(淸少納言), 「시(詩)」에서는 이즈미 시키부(和泉式部)가 남성문학자를 앞질

러 활약했습니다. 특히 무라사키 시키부의『겐지 모노 가타리(源氏物語)』는 일본문학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세계문학을 장식하는 여성문학 최고의 걸작으로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해외에서 일본문학연구의 일인자로, 획기적인『일본문학사(日本文學史)』를 완성하고, 미시마 유끼오(三島 由紀夫), 아베 코오보오(安部公房) 문학의 번역과 연구에서 정열을 쏟은 콜롬비아대학의 도널드·킨(Donald Keene) 교수는『源氏物語』야말로 영원한 미를 창조한 일본문학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아더 웰리(Arthur Waley:1889-1966)가 현대영어문체로 번역한『The Tale of Genji』(1925-33) 전6권은 20세기 문학혁명의 기수인 프랑스문학가 마르셀 푸루스트의『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1913-21)의 방법인「내적독백(內的獨白)」, 영국문학가 제임스 조이스의 대표작인『율리시즈』(1922)의 방법인「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이 이미 무라사키 시키부에 의해 창조되어 있었다는 것을 명증(明證)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유정(柳呈)씨의 한국어역을 비롯해서 독일, 프랑스, 러시아, 스웨덴, 이탈리아, 중국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일본의 여성작가들은 어떻게해서『源氏物語』를 넘어선 독창적인 문화공간을 창조할 것인가로 고뇌하며, 무라사키 시키부의 문학적 재능에 심한 질투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대를 바꿔서 메이지(明治) 시대를 보면, 당시의 여성문학은 규수(閨秀) 문학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도(江戶)시대의 봉건제도가 부정되고, 쇄국정책은 개국정책으로 전환 되어 밖으로부터 그리고 위로부터의 근대화는 진행되었지만, 안으로부터 아래로부터의 근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회기층에서는 유교윤리, 불교사상에 기인하는 남존여비와 가부장제도가 강하게 남아 있어서, 사회는 여성에게「집」과「남편」에 대한 헌신을 당연한 것처럼 요구했습니다. 여성의 인격과 인권은 경시되어 연애결혼, 교육과 취직의 자유도 속박을 받았습니다. 근대문학의 개척자로 현대여성작가들이 경애하는 히구찌 이찌요오(樋口一葉)의『키 대보기』,『십삼야(十三夜)』,『흐린 강』,『일

엽일기(一葉日記)』 등의 작품은 사회적 모순과 불합리를 숙명이라고 체념하고 가난의 고통을 인내하면서 작은 행복을 애써 추구하다가 결국 숙명과의 싸움에서 아름답게 패배해 가는 인간상이 리얼리즘의 방법으로 또한 풍부한 시정으로 선열(鮮烈)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가난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불과 24세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간 아깝기 그지없는 불행했던 생애와 더불어 그 작품은 지금도 많은 독자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요사노 아끼꼬(与謝野晶子:1878-1942)는 연애를 「나의 중심생명」이라고 주장하며,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 인습에 도전했습니다.

내 속살의 뜨거운 혈관에 닿아보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은 가요, 도리를 따지는 이여.

짧기만한 젊음인데 불멸의 생명이 다 뭐냐고, 힘없는 젖무덤 그 손에 쥐게 하고

라고, 인간의 본능을 적극적으로 긍정하여 자랑스럽게 관능미를 구가했습니다. 처녀시집『흐트러진 머리』(1901) 한 권으로 새로운 낭만주의 사상과 미의 창조의 선풍을 불러일으켰 습니다. 낭만주의운동의 기관지『명성(明星)』(1900. 4-1941. 11, 전100권)을 남편인 요사노 텟깐(与謝野鐵幹)과 함께 간행하여, 이시카와 타쿠보쿠(石川啄木), 요시이 이사무(吉井勇), 기타하라 하쿠슈우(北原白秋) 등 개성이 넘치는 많은 가인(歌人)과 시인을 양성했습니다. 또한, 문부성의 교육통제에 반대하여 예술의 자유교육을 이념으로한「문화학원(文化學院)」창립에 참가해서 군국주의적 시대사조에 예술적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여성해방운동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러일전쟁을 부정한 반전사상의 시인으로서 요사노 아끼 꼬는 현대문학사에 불멸의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성문학가의 이상상(理想像)으로서 오늘날에서 여권주의자로부터 존경받고 있습니다.

히라츠카 라이쪼오(平塚らいてう : 1889-1971)는 "元始여성은 태양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세이또오』(1911.9-1916.2, 전 52 권)을 창간하

고, 세이또오샤선언 제1조에 "여성문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자 천부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훗날 여성문학의 천재를 낳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새로운 여성'의 출현을 지향했습니다.

제1차세계대전 전후의 데모크라시의 시대풍조를 타고 정치적인 여성의 모든 권리획득을 목표로 하는 여성운동이 활발해져, 이른바 다이쇼오(大正) 자유주의는 여성의 교양향상과 경제적인 자립을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있어서 주목되는 여성작가는 타무라 토시꼬(田村俊子 : 1884-1945)입니다. 코우다 로한(幸田露伴)에게 문학지도를 받으면서 스승의 문학과, 문체에 만족하지 못해 여배우를 꿈꾸고, 미국유학에서 돌아온 동문(同門) 작가 타무라 쇼오쿄(田村松魚)와 결혼, 그 문학적 재능을 발견해 준 남편의 격려에 힘입어, 오사카 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 현상소설에 응모한 『체념』(1911. 1-3)이 1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동성애를 다루는 등 새로운 여성의 탐미적 생활과 정신적 고뇌를 그린 모더니즘은 단번에 신진여성작가로서 매스컴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한편 신사회극(新社會劇) 『파도』의 주연 배우로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대표작 『미이라의 입술연지』(1927.4)는 "불행히도 예술의 세계에 함께 태어난 애증(愛憎)의 상극이라는 비극이 관능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후, 작자 자신이 진실한 사랑을 찾아서 남성편력을 거듭하다가 1932년, 문학을 버리고 캐나다로 탈출, 1936년 52세의 나이에 귀국, 54세에 친구의 남편과 연애관계에 빠져, 그 청산을 결의하고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이 패전하는 날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어 부인잡지 『여성(女聲)』을 편집. 패전의 해인 1945년 4월 16일 뇌일혈로 급절(急逝)했습니다. 사랑에 목숨을 버린 기구한 운명은 이렇게 하여 막을 내렸으나, 그 작품은 오늘날에도 신선한 매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쇼오와(昭和), 전전(戰前), 전중(戰中), 전후(戰後)를 통해 백세의 장수를 문학에 바치고 여성 최초의 예술원회원이 된 노가미 야에꼬(野上弥生子 : 1885-1995)의 존재와 생성은 위대합니다. 대표작 『미로(迷路)』(1936. 11-1956. 10)는 쇼오와 기(期) 지식인의 사상적 방황과 그

운명을 동시대적인 구상으로 구린 사상소설의 전형으로 주목됩니다. 또 『숲』(1972-1985)도 작자의 분신이 메이지 기(期)의 한 여성의 지적 청춘의 시와 진실을 탐구한 교양소설 (Bildungsroman)로서 성공하여, 일본문학대상을 수상했습니다. 80대에 들어서 세속적인 명성과 절연하고, 한겨울의 키타카루이자와 별장에서 고독한 사색생활에 전념하면서, 같은 키타카루이자와에 홀로사는 고독한 철학자 타나베 하지메(田辺元)와의 정신적인 연애를 아름답게 영위했습니다.

일본 프로레타리아문학을 대표하는 최고의 여성작가는 미야모또 유리꼬(宮本百合子 : 1899-1955)로 남편은 현 일본공산당 위원장 미야모또 켄지(宮本顯治)입니다. 자전소설 『노부 꼬』를 비롯해 『두 개의 뜰』 『파주평야(播州平野)』 『풍지초(風知草)』에 일관된 주제는 근대에서 현대로, 사회적인 인습과 싸우는 일본의 지적인 여성의 정신사적인 자화상입니다.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고 주체성 확립을 희구하는 일본 진보주의 여성들이 직면하는 현실의 부조리—특히, 관념적 이상주의의 패배, 낙천적 현실주의의 한계, 가족제도와 결혼생활의 위기, 진보주의자의 사상과 행동에 있어서의 동지애와 배신 등의 여러 모습이 주지주의적 방법으로 그려져서 극히 교훈적입니다.

우노 치요(宇野千代 : 1897-1996)는 도둑질과 살인 말고는 뭐든지 해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생애 동안 많은 연하의 남성작가들과 결혼과 이혼을 되풀이하고, 정치(情痴)의 연옥(煉獄)체험을 통하여, 인간! 이 어리석은 생물의 사랑스럽고도 서글픈 양면을 응시합니다. 명확한 문체로 남녀의 정념(情念)이라는 심연의 생태(生態)를 한마디 한마디씩 새겨간 『색정의 참회』『오항』 등은 쇼오와문학의 주옥 같은 명작입니다.

에찌 후미꼬(圓地文子 : 1905-1986)의 대표작 『여판(女坂)』은 조금도 질투를 내색하지 않고 남편의 사랑의 배신을 참고 견디던 아내가 병들의 임종이 다가왔을 때, "제가 죽더라도 절대로 장례를 치르지 마세요. 시체를 시나가와바다에 가지고가서 바닷속에 버려주시면 됩니다"라고 남편에게 유언합니다. 아내의 마음 깊이 숨겨진 분함에서 오는 잡

념이 처음으로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메이지시대의「가족제도」에 얽매이면서 마음의 황야에서 굴욕을 견뎌낸 여성의 오기와 긍지를 심리적 리얼리즘의 방법으로 그린 현대문학의 고전적 걸작입니다. 엔찌 후미꼬는 다니자끼 준이치로오(谷崎潤一郎)와 요사노 아끼꼬의 『源氏物語』 현대어역을 비판하고, 스스로 『源氏物語』 전역(全譯)을 완성했습니다.

이밖에도, 쇼오와 문학의 사적 골격을 형성한 여성작가로서 "나는 숙명적으로 방랑자다. 나에게 고향은 없다"로 시작되는 공전의 베스트셀러 『방랑기(放浪記)』(1930)를 쓴 후미꼬. 향기높은 나르시시즘과 불교적인 무상관(無常觀)을 승화시킨 『생생유전(生々流轉)』(1939)의 오카모토 카노꼬(岡本かの子). 프로레타리아문학으로 출발한 히라바야시 타이고(平林たい子), 사타 이네꼬(佐多稻子), 쯔보이 사까에(壺井榮) 등의 문학적 움직임도 기억할 만한다고 하겠습니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배는 남성중심의 사회원리를 붕괴시켰습니다. 승전국인 미국의 점령정책으로 남녀동등권과 여성의 참정권, 남녀공학과 취직의 기회균등이 법제화되고, 일거에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취직의 기회균등이 법제화되고 민주주의가 찬미되었습니다. 전후(戰後)의 문학적 상황은 ①전통적인 사소설(私小說)과 심경소설(心境小說). ②정치주의적인 프로레타리아문학과 민주주의문학. ③전위주의(前衛主義)문학의 조류와 떨어져, 특히 전후(戰後) 문학은 실존주의 문학이 유행했습니다. 새로운 여성문학 계절의 도래를 실감시킨 것은 아리요시 사와꼬(有吉佐和子 : 1931-1984), 소노 아야꼬(曾野綾子 : 1931-), 쿠라하시 유미꼬(倉橋由美子 : 1935-) 등의 출현입니다. 아리요시는 『지패(地唄)』, 『기(紀)의 천(川)』, 『화강청주(華岡靑洲)의 처(妻)』 등으로 봉건시대의 의리와 인정의 모럴에 얽매이면서도 현명하게 살아가는 여자의 생명력의 훌륭함을 그려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윽고 고령화사회의 인간의 비극을 선취(先取)했습니다. 『광홀(光惚)한 사람』(1972)과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생활환경을 파괴하는 『복합오염(複合汚染)』(1975) 등으로 예리한 문명비판을 시도하고, 경고를 했지만, 펜클럽 동경(東京)대회후 급절(急逝)했습니다. 소노아야꼬는 교제하는 여성을 모

두 불행하게하는 남자, 가장 매력적인 여성의 적(敵)인 주인공의 에고이즘을 그린 『잠깐 동안』(1959)으로 문단적명성을 정착시키고 『허구(虛構)의 집안』(1973), 『초겨울의 정원』(1975)으로 휴머니즘의 가면을 쓴 인간의 위선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부재(不在)의 방』(1976), 『신(神)의 더럽혀진 손』(1977) 이후 인간의 원죄를 둘러싼 종교적 주제를 정열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쿠라하시 유미꼬는 『정당(政黨)』(1960), 『인간이 아닌 신(神)』(1961), 『성소녀(聖少女)』(1965), 『어두운 여행』(1965), 『꿈의 부교(浮橋)』(1970)와 야심적인 방법적 실험으로 소설 개념의 변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카프카와 사르트르를 의식하면서 소설의 양식을 빌린 새로운 형이상학, 새로운 존재론을 탐구하는 가장 전위적인 작가입니다. 나카사토 쯔네꼬(中里恒子), 시바끼 요시꼬(芝木好子), 세또우찌 쟈쿠쯔오(瀨戶內寂聽), 오오바 미나꼬(大庭みな子), 토미오카 타에꼬(富岡多惠子), 카나이 미에꼬(金井美惠子), 미쯔에 카즈꼬(三枝和子), 쯔시마 유우꼬(津島佑子) 등의 소설은 개성적 작풍으로 열렬한 독자를 얻고, 드디어 성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기말을 맞이한 일본의 문학적 상황의 특색은 압도적인 여성작가, 시인, 평론가의 등장입니다. 소설, 시, 희곡, 평론 등 기성(旣成)장르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정신의 모험에 기초를 두고, 주체적인 언어를 전개하는 여성작가의 배출입니다. 그 문학사회학적인 배경에는 문학의 생산, 분배, 소비의 담당인 남성에서 여성에로의 변동입니다. 문학인구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비율을 크게 역전시켜서, 여성의 문학참가는 선(線)에서 면(面)으로, 면(面)에서 층(層)으로, 아쿠타가와상(賞)을 비롯한 각종 문학상을 독점하고, 대학의 문학부는 여학생으로 점령되고, 편집기자 등, 문예저널리즘의 여성대량진출 등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일대 변화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학의 상품화를 둘러싼 출판사의 경영전략에 있어서도 베스트셀러작전을 비롯한 많은 기획은 여성의 문학적 관심과 경향의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조사의 결과를 참조하면서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1987), 야마다 에이미(山田詠美)의 『베드 타임 아이

즈』(1985), 오가와 요우꼬(小川洋子)의 『임신(姙娠)캘린더』(1991), 오기노 안나(荻野アンナ)의 『세오이 미즈』(1991), 타와다 요우꼬(多和田葉子)의 『개 장가들기』(1993), 마쯔우라 리에꼬(松浦理英子)의 『엄지손가락 P의 수업시대(修業時代)』(1993), 쇼우노 요리꼬(笙野賴子)의 『타임슬립 컴비네이트』(1994), 미즈무라 미나에(水村美苗)의 『사소설(私小說)』(1995)은 21세기를 향한 미(美)와 사상의 지평선을 개척하고, 남성작가와 비평가가 지배하고 있는 기성문단(既成文壇)에 선열 (鮮烈)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여성작가들이 건설한 문학공화국에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양지(李良枝)씨, 사기사와 메구무(鷺澤萌)씨, 유리리씨 등 재일한국인(在日韓國人) 2세 여성작가의 폭발적인 진출입니다.

이양지(1955-1992)는 부모의 불화로 중고등학교 때 가출을 반복합니다. 이윽고 한국인임을 각성하고 가야금, 무속전통무용에 매료되어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27세 때, 서울대 국어국문과에 진학. 1989년 1월 『유희』로 아쿠다가와상(賞)을 수상합니다. 수상 후 다음과 같은 말은 일본문학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 愛(あい)는 한국말로 사랑이라고 하고, 人(ひと)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의 생(生) 그 자체를 삶이라고 한다. 이 세계의 성립과, 무엇보다도 둘도 없는 사랑, 사람, 삶이라는 말이 '사ㄹ'이라는 같은 소리로 시작하고 있다. 같은 소리로 시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조상들의 생각을 나는 신뢰하고, 존경하고 싶다. 그리고 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속에서 말 그 자체에 베어 있는 힘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지금부터라고 확인해 가고 싶다. 일본어도 愛(あい)는 '아'로 시작하고, 生(せい)도 옛날에는 '아'로 읽히기도 했다. 사람 으로서 같은 생각이 같은 소리 속에 베어져왔다.

강하고 따뜻하고 우아한 숨결은 나는 두 개의 언어의 울림 속에서 느낀다. 이제부터다 라고 생각한다. 살아가기 위한 말의 지팡이. 혈통의 파도 속에서 그 두터움을 얻어갈 수 있었 으면……하는 바램이다."

그후 이화여대대학원 무용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하여「불교의례무 용

(佛教儀禮舞踊)에 나타난 반복성의 미(美)」를 연구했고, 1992년 5월 22일에 급성심근염으로 37세로 급절(急逝). 많은 가능성을 영원히 닫아 버려서 더없이 슬픈 일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양지의 문학과 사상이 연구되고 있고, 『나에게 있어서 모국과 일본』(『한일문화강좌(韓日文化講座)』 No.15, 1990.10)은 정신사적 편력을 이야기하는 필독의 문헌입니다.

사기사와 메구무씨의『너는 이 나라를 좋아하는가』가 이번 달에 신조사(新潮社)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국적은 일본이라도 머리는 한국인. 일본인도 한국인도, 세계적으로 국경이 엷어져 크리올화(化)(Creole화 : 여러 가지 언어가 섞여서 모어(母語)로 쓰임)가 진행되고 잇는 것에 빨리 눈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한글은 정말로 재미있어서, 이 표음문자문화를 알 면 어떤 나라사람이라도 반할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단언합니다. 이 작가의 미래는 새롭다. 「국제소설」의 창조를 예감하게 합니다.

현재, 매스컴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여성작가는 유미리(柳美里)씨입니다. 얼마전 아사히신문에서는 아쿠타가와상(賞) 수상작품은 『가족 시네마』(강담사講談社)가 발매 후 반면 만에 25만 5천 부나 팔렸다는 것을 유미리씨가 사진과 함께 크게 광고했습니다. 보통 2천 부도 팔리지 않는 신진작가와 비교하면 그 폭발적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1968년생 으로 30세가 안 된 유미리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극단「청춘오월당(青春五月党)」을 결성하고 희곡집 『물고기의 숲』으로 키시다 쿠니오(岸田國士) 희곡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설 『풀 하우스』로 이즈미쿄우까(泉鏡花)상(賞), 노마(野間) 문예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희곡집『정물화(靜物畵)』,『해바라기의 관(棺)』『Green Bench』, 에세이집 『가족의 표본(標本)』『유미리(柳美里)의 「자살」』,『사어사전(私語辭典)』『창(窓)이 있는 서점에서』를 간행하여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창(窓)이 있는 서점에서』의 머리말에서 "어릴 때부터 내가 마음을 준 것은 사자(死者)들, 이야기를 쓰고 죽어간 사람들뿐이다" 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인간만이 합니다. 사자

도 콘돌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은 가장 인간적인 행위라고 생 각하며,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단언합니다. 유미리씨의 인생의 원체험(原體驗)은 가정의 붕괴입니다. 자전소설 『물가의 요람』을 읽으면 주인공이 발광도 하지 않고, 자살도 하지 않고, 알콜이나 마약중독도 되지 않고 잘도 살아왔다. 참담한 가족관계 속에서 10세에 자살을 생각하고, 중학 2학년때 가출하는 주인공의 운명을 생각할 때, 파멸하 지 않은 것이 기적으로밖에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프랑스영화 「금지된 장난」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라는 회상은 무겁고도 안타깝다. 어른에게로 향한 불신에 시달려 고독과 불안에 떤 유년시절을 문학적 상상력의 원천으로써, 펜 한자루로 유미리씨는 세계로 향해 자기권력의 확립을 선언합니다. 일찍이 결혼생활의 산 모델이었던 부모의 허구(虛構)로 꾸며진 가정생활에 환멸하고, 정신적인 무주거자(homeless)화(化)한 일본의 청년에게 있어서, 『가족 시네마』가 제기한 문제는 극히 충격적입니다. 현대문학은 문명의 독(毒)에 침해당한 인간정신 의 위기를 구제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불사조 같은 생명력을 믿는 유미리의 세드·마조히스틱(sad-masochistic)한 문학적 행동이야말로 가장 교훈으로 가득찬 해답입니다. 21세기의 일본문학은 유미리씨가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해 줄 것 같은 예감입니다. 3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여성문학인화에 초대받아서, 세기말의 일본 여성문학에 관해 강연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모더니즘의 비교문학적이 연구를 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영광입니 다. 한국문학으로부터 본 일본의 여성문학의 민족적 특질과 국제적 보편성의 존부(存否)에 관하여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高見)을 듣고, 한국의 모더니즘문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상황에 관해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은희 회장님의 우정에 통역을 해주신 정병순 선생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번역/ 정병순 : 한림대 일본학과 강사).

An important work on Women writers in contemporary Japanese Literature.

summary

世紀末の日本女流文学
—美と思想と方法を中心に—

世紀末を迎えて、20世紀文学の遺産目録の作成が、特にFuturismo、Dadaisme、Surréalismeなどの分野では、国際的スケールで進行中で、その文学史的意義や価値が検討されている。だが、20世紀の女性文学の全体像を巡る研究水準は薄明の状態である。

本論考は、1997年6月24日、韓国女性文学人大会での招待講演において、20世紀の日本の女流文学の史的動態を問題史的に考察。分析視点を以下の如く設定、最後に在日韓国女性作家、李良枝、鷺澤萌、柳美里等の創造的特質と可能性に就いて論述している。

①小説概念の多元的情況
②源氏物語の現代的意義と国際的評価
③女流文学の開拓者たち
④精神史的自画像としての女流文学
⑤戦後女流文学の旗手たち
⑥世紀末の女流文学の迷路と未来像

本論文の韓国語訳は、韓国におけるモダニズム文学研究の第一者で、詩人である、清州大学名誉教授、秋恩姫女史の御指導と、権錫永博士等の献身的な成果で、日韓学術交流のマイルストーンとして学恩に感謝したい。